

김수영 시평 연구

권진희*

|| 차례 ||

- I. 서론
- II. 김수영 시평에 나타나는 '현대성'과 '새로움'의 추구
- III. 창비, 문지 진영의 평가과정과 문제점
- IV. 결론

【국문초록】

김수영은 한국현대문학을 오랫동안 양분해온 『창작과비평』(창비)과 『문학과지성』(문지)진영에서 각각 자신의 문학적 거점으로 평가되면서 큰 주목을 받아왔다. 창비 진영은 백낙청과 염무웅 등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현실의식에 주목해서 그를 참여 시인으로 평가해온 반면, 문지 진영은 현실에 대응하는 양식으로서의 모더니티에 주목하여 그를 모더니즘 시인으로 평가해온 것이다. 그러나 시평을 통해 확인되는 김수영 문학의 특성은 '현대성'과 '새로움'의 추구 두 가지로 분석된다. 그의 현대성은 '온몸의 시학'을 바탕으로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것에 대한 실천적 저항을 의미하며, 그의 새로움은 강한 개성을 의미하는 동시에 철저한 절망을 통해 죽음과도 같은 자기갱신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창비진영과 문지진영의 기존 평가는 김수영 문학의 본질적 측면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김수영이 추구한 문학은 '죽음'과도 같은 '새로움'을 견뎌내면서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것을 '온몸'으로 거부하는 진정한 '현대성'의 지향인 것이다.

주제어 : 김수영, 창비, 문지, 모더니즘, 현대성, 온몸의 시학

* 고려대학교 문예창작학과 박사과정

I. 서론

김수영은 모더니티(modernity)한 시의 형식과 치열한 현실참여의식을 동시에 지닌, 한국 현대문학사상 가장 주목받는 작가의 하나로 평가되어왔다. 그가 해방 이후 한국 최고의 시인, 또는 신화의 반열에 들 수 있는 작가로까지 평가받는 이유는 그가 그동안 한국문학사를 오래 양분해온 참여와 순수 진영에서 자신들의 문학적 거점으로 인용되면서 재해석되어 온 것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¹⁾ 즉 『창작과 비평』(이하 창비) 진영에서는 백낙청과 염무웅을 중심으로 김수영이 시와 산문에서 보여준 현실의식을 근거로 해서 그를 참여 시인으로 편입시키고자 한 반면에, 『문학과 지성』(이하 문지) 진영의 평론가들은 현실에 대응하는 양식으로서의 모더니티에 주목하여 그를 모더니스트로 평가해온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각 진영은 김수영이 지니고 있는 특성 가운데 자기 진영에 요구되는 부분에만 집중해서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연구 대상으로 논의되는 시가 한정되거나, 주제에 따라 시나 산문이 역으로 선택되어지는 연역적 방법이 주류를 이루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1차 자료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하다보니 일부 연구에서는 『김수영 전집』²⁾에서 확인되는 내용과 동떨어진 연구결과를 도출한 경우도 발견된다. 이러한 까닭에 “김수영은 논문들을 통해서, 심하게 말하면 머리 깎인 삼손이 되거나 단지 한국문학의 특이한 현상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³⁾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고,

1) 박수연, 『김수영 해석의 역사』, 『작가세계』, 세계사, 2004 여름, pp.131-132와 p.137.

2) 이 글에서는 민음사에서 2012년에 발간한 『김수영 전집2』를 1차 자료로 삼았다. 이후 『전집2』는 2로 약칭하며, 인용한 부분의 쪽수는 괄호 안에 2에 바로 이어서 표기하기로 한다. 예를 들면 『전집2』의 p.100은 (2100).

3) 박수연, 앞의 글, p.140.

“5.16 이후 새롭게 등장한 억압체제로 인해 생겨난 신화”⁴⁾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이 글은 창비와 문지에 따라 김수영이 어떻게 해석되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김수영은 어떻게 왜곡되어 왔는가를 규명해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김수영의 시평(詩評)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김수영의 어떠한 특성이 창비와 문지 두 진영으로 하여금 그를 자기 진영의 시인으로 평가하게 하였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두 진영의 김수영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각 진영논리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2. 김수영 시평에 나타나는 ‘현대성’과 ‘새로움’의 추구

1. ‘현대성’의 의미

시평은 시나 시집에 대한 평가를 가리킨다. 시평은 작품을 평가하는 작가나 연구자의 시각을 여실히 드러내준다는 점에서 작가의 문학관 내지는 시론을 파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김수영이 “우리나라의 현대문학에서 시와 산문이 따로 곁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 팽팽히 조명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시인 가운데 하나”⁵⁾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데에는 그가 생전에 발표한 시평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는 시를 논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자. 나는 이미 <시를 쓴다>는 것이 시의 형식을 대표한다고 시사한 것만큼, <시를 논한다>는 것이 시의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전제를 한 폭이 된다. 내가 시를 논하게

4) 박현수, 『김수영의 신화』, 『시인세계』14, 문학세계사, 2005 겨울호, pp.52-58.

5) 황동규, 『양심과 자유, 그리고 사랑』, 『김수영의 문학』, 민음사, 1983, p.16.

된 것은 - 속칭 <시평>이나 <시론>을 쓰게 된 것은...(중략)... 논지의 진행상의 편의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구태여 말하자면 그것은 산문의 의미이고 모험의 의미이다. 시에 있어서의 모험이란 말은 세계의 개진(開陣), 하이데거가 말한 <대지(大地)의 은폐>의 반대되는 말이다. ... (중략)... 예술성의 편에서는 하나의 시작품은 자기의 전부이고, 산문의 편, 즉 현실성의 편에서도 하나의 작품은 자기의 전부이다.(2398)

김수영은 그의 시평에 대해 하이데거의 이른바 ‘세계의 개진’ 곧 행위 주체가 실존적 존재임을 스스로 확인하면서 일상성에 은폐되어 있는 진리치를 드러내는 과정이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즉 시평이 단순히 시에 대한 평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실성의 측면에서 자신의 전부를 드러내는 문학적 작업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시평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그의 시론이나 문학관을 파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김수영의 산문 가운데 시평에만 주목하여 연구한 사례는 아직까지 전무한 실정이다. 김수영의 시론을 온전히 복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의 시평 전체에 대한 총체적이고 분석적인 연구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수영은 1963년부터 작고하기 전 해인 1967년 12월까지 연간 총평(總坪) 6회와 월평(月評)에 해당하는 시평(詩評) 23회 등 29회의 시평을 발표했다.⁶⁾ 박두진과 박태진에 대해 쓴 글을 여기에 포함시키면 그가 발표한 시평은 모두 31회이다.

시평에서 그가 작품을 평가하는 기준은 ‘현대성’과 ‘새로움’이다. 그는 연간총평과 월평(月評) 대부분에서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작품은 성공한 작품으로, 그 반대의 경우는 부정적인 작품으로 선명

6) 부록 1 참고.

하게 구분하고 있다.⁷⁾

김수영의 현대성과 새로움에 주목한 연구사례로는 장동석과 정한아, 장원석의 연구사례가 있다.⁸⁾ 장동석은 김수영의 현대성을 4.19 이전과 이후로 구분한 뒤, 4.19 이전의 현대성은 ‘현대성에 대한 강한 동경’의 성격을 띠는 반면, 4.19 이후의 현대성은 ‘탈식민주의 현대성’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한아도 김수영의 현대성을 초기의 ‘지적 현대성’과 후기의 ‘정치적 현대성’으로 구분하면서 김수영의 현대성은 기약없는 가능태로서의 현대성에서 정치적 현대성의 성격을 띠는 방향으로 변모해간다고 평가했다. 장원석은 김수영의 전위의식과 부정의식에 주목하여 새로움의 의미를 규명해내고자 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김수영의 현대성과 새로움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통시적으로 규명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자유’와 ‘죽음’, ‘데카르트적 코키토’ 등 기존 연구 성과에 기반하여 연구가 진행된 점과 이들의 연구가 각각 ‘현대성’이나 ‘새로움’에만 주목하여 논의를 진행한 결과 이 두 가지 주제의식이 김수영의 문학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총체적으로 조망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김수영의 시평을 중심으로 김수영의 ‘현대성’과 ‘새로움’의 의미를 들여다보는 것은 진영논리로 왜곡된 김수영 문학의 본질을 보다 명확히 규명해내기 위한 과정일 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 성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작업으로써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먼저 ‘현대성’의 의미를 살펴보자.

7) 부록 2 참고.

8) 장동석, 『김수영 시의 현대성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2001; 정한아, 『‘온몸’, 김수영 시의 현대성』,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3; 장원석, 『김수영 시의 새로움 연구』, 『한국시학연구』 8, 2003.

시평을 통해 확인되는 김수영의 ‘현대성’은 좁은 의미로는 낡은 표현이나 과거지향적 자세와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신석초의 작품 『처용은 말한다』를 가리켜서는 “작자가 처해 있는 고답적인 자세가 낡은 것”이라며 “비현대적도 아닌 반현대적인 작품”(2525)이라고 평가한 반면에 마중기의 『연가(戀歌)12』를 두고 “풍자의 현대성이 있다”(2551)고 언급하거나 허소라의 『아침시작』을 “현대적 감각미를 지녔다”(2568)고 평가한 것은 모두 이러한 의미에서 ‘현대성’을 뜻한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가 말하는 ‘현대성’은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대상에 대한 저항을 의미한다. 『연극 하다가 시로 전향』이란 글에서 그는 “트릴링은 쾌락의 부르주아적 원칙을 배격하고 고통과 불쾌와 죽음을 현대성의 자각의 요인으로 들고 있으니 그의 주장에 따르면 나의 현대시의 출발은 『병풍』정도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고, 나의 진정한 시력(詩歷)은 불과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2337)면서 자신의 ‘현대성’이 트릴링과 관련되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김수영이 번역한 L. 트릴링의 글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현대작가가 파괴하려고 애쓰는 가장 직접적인 외양만의 행복은 두말할 것도 없이 부르주아 세계의 습관적 풍속과 ‘제가치’ 등인데, 그것은 다만 이러한 것들이 아버지성이나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착취 같은 수많은 악랄한 것들과 관련을 갖고 있는 때문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즉 이러한 것들이 자유를 위한 개인의 운동을 저해하고, ‘더 많은 생명’의 도달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⁹⁾

9) L. 트릴링(Lionel Trilling), 김수영 역, 『쾌락의 운명 : 위즈워드에서 도스또예프스키까지』, 『현대문학』, 1965 11월호; 강웅식, 『김수영 시론 연구』, 『상허학보』, 2003, p.167에서 재인용.

인용문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트릴링이 말하는 ‘현대성’은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에 대한 부정과 거절의 정신’이자 ‘자유를 위한 개인의 운동을 저해’하는 것에 대한 파괴(저항)와 관련된 개념이다.¹⁰⁾ 즉 트릴링은 모두 병들어 있는 부분이 모여 이루는 병든 전체에 대한 전면적 부정 없이는 그 어떤 긍정이나 생성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고, ‘증오’와 ‘부정’ 그 자체는 부정적인 계기이지만, 부정적인 것에 대한 부정은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므로, 이러한 ‘현대성의 반어’를 통해 자본주의 사회의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와 절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¹¹⁾ 김수영 역시 그의 시평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에서 “진정한 품의 개혁은 종래의 부르주아 사회의 미(美)-즉, 쾌락-의 관념에 대한 부단한 부인과 전복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2368)고 언급함으로써 그의 ‘현대성’이 트릴링과 동일한 맥락에서 쓰이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시평에서 김수영이 시를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의 하나로 삼은 ‘현대성’은 과거지향적인 자세나 기존의 내용이나 형식에 대한 거부의 의미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자유를 위한 개인의 운동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를 억압하는 모든 것에 대한 파괴, 곧 저항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과 같은 진술이 이를 뒷받침한다.

우리 시단은 <현대가 제출하는 역사를 과제를 해결>하려는 열의가 희박하며, 이것이 우리 시단이 전체적으로 썩었다는 인상을 갖게 한다. 기성인들은 모두가 이 과제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신진들의 작품은 아직 제대로의 발언

10) 조현일, 『김수영의 모더니티관에 관한 연구 : 트릴링과의 영향관계를 중심으로』, 『작가연구』 제5호. 조현일은 김수영의 ‘현대성’은 트릴링과 관계된 것으로, 병든 전체에 대한 전면적 부정 없이는 그 어떤 긍정이나 생성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의미에서 김수영의 ‘현대성’은 ‘급진성’을 내재한 개념이라고 보고 있다.

11) 강웅식, 앞의 글, p.169.

을 할 만한 성숙에까지 도달하지 못했다.(2530)

시인의 스승은 현실이다. 나는 우리의 현실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을 부끄럽고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보다도 더 안타깝고 부끄러운 것은 이 뒤떨어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시인의 태도이다. …(중략)… 우리의 현대시가 우리의 현실이 뒤떨어진 것만큼 뒤떨어진 것은 시인의 책임이 아니지만, 뒤떨어진 현실에서 뒤떨어지지 않은 것 같은 시를 위조해 내는 것은 시인의 책임이다.(2515)

김수영의 이러한 발언은 당대의 사회적 현실을 치열하게 직시하면서 지식인이라면 마땅히 해결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에 충실한 자세가 그가 추구하고자 하는 ‘현대성’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그가 말하는 역사적 과제가 1950~60년대의 부조리한 정치권력이나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회 현실에 맞서는 문학적, 사회적 실천을 의미하는 것임은 자명하다.

개별 작품에 대한 시평에서 그가 말하는 ‘현대성’은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역사가 알 리 없는……/나의 초조한 걸음을/나의 지지한 작은 일들을/역사가 알 리 없는/서대문 근방은 먼지가 많다/그러기에 하늘은 멀리만 보이고/
-박태진, 「역사가 알 리 없는」, 1연 부분.

우리는/쿠파 소령만큼/진지한 우주통신을 한 양/비틀대며 돌아와/누웠다,
그리곤 또 구름조각/이불숨에 휘감겼다./진부한 것에 얽매여갔다.
-박의상, 「전후8」, 2연 부분.

초등학교 적, 꿈을 놓으며 징검다리를 건너던/순이 이뿐이 영이 복돌이 개똥이의/소꿉장난 땅뺨기의 싸움 일어 피로 얼룩진 땅 위에서/어메들의 웃고름에 매달리던 유년을 보는가.// …(중략)… //몸을 보채며 많은 밤을 문지르던 나날의/어메의 눈물은 어디서 주의(主義)를 재우고/아빠의 기침은 어디서

포성을 잠재우고 있는가/조용하던 시절을 벗어내리면서/강한 품안을 세우기
 위해 내 여기 서 있네. -조태일, 『너의 눈앞에 서서』, 2연과 4연.

그가 ‘현대성’을 획득한 작품이라고 평가한 박태진의 『역사가 알 리 없
 는……』(2316)은 역사적 현실과 동떨어진 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성찰하
 면서, ‘역사가 알 리 없는’ 서대문 근방에서 먼지에 파묻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신의 삶의 자세를 가다듬고 있다. 김수영이 ‘포즈’의 폐해가 가장
 적은 현대감각적인 성과를 보여준 작품이라고 평가한 박의상의 『전후(戰
 後) 8』(2565)도 ‘진지한 우주통신’이라도 한 듯이 비틀대며 이불숨에 휘감
 겨 누워있는 자신을 자조하면서, 진부한 것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추구해
 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김수영이 절망적인 현대의 상상 위에 선 의지적인
 작품이라고 높이 평가한 조태일의 『너의 눈앞에 서서』(2572) 역시 인용시
 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이념대립으로 인한 민족의 상처를 직시하면서,
 의지적인 자세로 분단 현실을 극복할 것을 다짐하는 시인의 남성적인 목소
 리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김수영이 ‘현대성’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한 작
 품들은 이처럼 한결같이 당대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치열한 자기부정과 사
 회적 삶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김수영은 이러한 ‘현대성’이 ‘육체’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현대성은
 육체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현대성은 생활과 육체 속에 자각되
 어 있는 것”(2317)이라는 것이다. 나아가서 ‘현대성’ 뿐만 아니라 예술성이
 란 의미에서 이른바 ‘포즈’를 추구하는 ‘모더니티’조차도 그는 “시인이 육체
 로서 추구할 일이지 기술면으로 추구할 것이 아니다”(2516)라고 말함으로
 써 그가 시를 평가함에 있어서 ‘육체’를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다.

김수영의 ‘육체’는 이른바 ‘온몸의 시학’을 바탕으로 나온 개념이다.¹²⁾

“시작(詩作)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하는 것이다. <온몸>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다”(2398)는 그의 말이 이를 보여준다. ‘육체’의 의미는 다음 인용문에서 보다 뚜렷하게 확인된다.

시는 문화를 염두에 두지 않고, 민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인류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문화와 민족과 인류에 공헌하고 평화에 공헌한다. 바로 것처럼 형식은 내용이 되고 내용은 형식이 된다. 시는 온몸으로, 바로 온몸을 밀고 나가는 것이다.(2403)

말을 바꾸어 보면 결국 김수영이 시를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의 하나로 설정한 ‘현대성’은 문화와 민족과 인류에 공헌하기 위해 온몸으로 형식과 내용을 동시에 밀고나갈 때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을 의미한다. 이를 바탕으로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것에 ‘육체’로 저항하는 사회적 실천이자 문학적 저항이 바로 그가 추구하고자 한 진정한 현대성의 의미인 것이다.

2. ‘새로움’의 의미

현대성과 함께 김수영이 시평에서 가장 중시하고 있는 또다른 기준이 ‘새로움’이다. 그는 김춘수의 『영혼』과 『유년시』 등을 비판하면서 “아무런 새로운 진전을 찾아볼 수 없다. 시에 있어서 인식적 시의 여부를 정하려면 우선 간단한 방법이, 거기에 새로운 것이 있느냐 없느냐, 새로운 것이 있다

12) ‘온몸의 시학’은 김수영의 『반시론』과 『시여, 침을 뱉어라』 등 두 편의 글을 중심으로 90년대에 들어와서 형성되고 있는 김수영의 시론에 대한 논의를 가리키는 용어다. 이승훈, 정남영, 안한상, 최두석, 황정상, 김명인 등의 평문과 이지연, 구용모, 강웅식의 학위 논문 등이 김수영 시론의 현대성을 논의하면서 ‘온몸의 시학’이라는 하나의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

면 어떤 모양의 새로운 것이냐부터 보아야 할 것이다. 인식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것이다. 나는 이 말을 백 번, 천 번, 만 번이라도 되풀이해 말하고 싶다”(2589)고 말해, ‘새로움’이야말로 그가 시를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임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시평 전체를 통틀어서 김수영이 가장 주목한 시인으로는 박두진과 신동엽, 조태일을 꼽을 수 있다.¹³⁾ 이들에 대한 평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이들의 시가 ‘새로움’을 지녔다는 것이다. 이들뿐만 아니라 시평의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움’은 시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다.¹⁴⁾

김수영이 말하는 ‘새로움’이 시적 개성을 의미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가령 김현승의 시 『파도』에 대해서 ‘자기의 스타일’을 지니고 있다(2601)고 한 평가나, 조태일의 『모처녀전(某處女前) 상서(上書)』를 두고 “아류적인 <새로운> 것이 아닌 자기만의 새로운 목소리를 찾으려고 애를 쓴다”(2595)고 평가한 것, 오경남의 『벽』과 『폭풍』을 가리켜서 “자기의 세계를 구축해 보려는 상당히 간간한 저력이 엮보이는 것이 좋게 생각된다”(2580)는 평가와 이탄의 『소등』에 대해 “시적 개성의 모서리가 날카롭다”(2552)는 등의 언급은 모두 자기만의 개성으로서의 ‘새로움’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단지 개성의 의미로만 국한시켜서 ‘새로움’을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가 『사계』 동인을 비판하면서 한 다음의 언급을 살펴보자.

13) 긍정적으로 평가한 작가 중에서 가장 언급횟수가 많은 시인은 조태일이다. 29회의 월평 중에서 김수영은 긍정적인 사례로 모두 9회에 걸쳐 조태일을 언급했다. 기성작가로 분류된 작가 중에서는 박두진(7회)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신동엽은 언급 횟수는 이들에 비해 다소 적었지만(5회), 언급할 때마다 대부분 시 전문을 인용하면서 격찬으로 일관한 양상을 보였다.

14) 부록 1, 2 참고.

이들에게는 한결같이 앞에서 말하는 체취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일 것이다. …(중략)… 이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육성(肉聲)이 모자란다는 말을 나는 감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중략)… 《사계》의 동인들이 우리 시단의 신진들 중에서 가장 교양있는 젊은 역군들이라는 것을 나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중략)… 그러면서도 나는 그들에게 감히 말한다. 고통이 모자란다고! <언어>에 대한 고통이 아닌 그 이전의 고통이 모자란다고. 그리고 그 고통을 위해서는 …(중략)… 시만 남겨놓은 절망을 하지 말고 시까지도 내던지는 철저한 절망을 하라고.(2574)

『체취의 신뢰감』에 수록된 이 글은 김수영이 강조하고 있는 ‘새로움’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체취’란 개성이 강한 작품이면서도 세련되지 않은 데가 오히려 매력이 있는, 이른바 “자기의 땀내”(2570)를 지닌 작품을 가리킬 때 그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이다. ‘개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새로움’과 표면상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언어 이전의 고통’을 전제로 한 ‘육성’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즉 새로움이 새로운 형식의 추구나 새로운 시적 의미의 획득을 지향하는 것이라면, ‘체취’는 언어 이전, 즉 실존적 주체가 닫고 서 있는 역사적, 사회적 현실에 대한 고통을 전제로 한 ‘육성’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에 대한 철저한 고통 없이 체취를 획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체취를 지니기 위해서 시인은 시조차도 내던질 수 있는 철저한 절망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다. 김수영은 바로 이 ‘체취’를 들어서 『사계』동인들을 비판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김수영의 ‘새로움’은 ‘죽음’과 만난다. 김수영은 『시의 완성』에서 박두진의 시 『사상』을 거론하며 박두진이야말로 4·19 시를 통과한 두세 명의 시인 중의 한 사람이자 진정한 시인이라고 평가하면서 “박두진의 시는 ‘살아서 한 편 한 편의 시를 통해 죽음을 완료’(2245)하고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신동엽에 대해서도 「아니오」를 인용하면서 “이 시에는 우리가 오늘날 참여시에서 바라는 최소한의 모든 것이 들어 있다”면서 “죽음의 음악이 울리고 있다”(2394)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들 작품은 둘 다 김수영 식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회시’ 계열의 작품으로, 치열한 현실인식과 역사적 전망을 바탕으로 씌여진 작품이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낡은 것이 새로운 것으로 바뀌는 순간, 이 시에는 죽음의 깊이가 있다”(2268)라고 평가한 김광섭의 「심부름 가는……」이나 “참여시의 뒷받침이 될 죽음의 연습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그의 장점”(2393)이라고 평가한 김재원의 「못 자고 깬 아침」 역시 현실참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작품이란 점에서 앞서 언급한 시와 동일한 성격을 지닌 작품으로 평가된다. 이를 통해 볼 때 김수영이 강조하고 있는 ‘새로움’은 ‘언어’ 이전에 먼저 현실에 대해 고통하고 절망하는 ‘새로움’이며, 죽음과도 같은 이러한 절망을 통과해낸 ‘육성’을 지닌 새로움이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김수영은 정신이나 이념에 대한 ‘죽음’과도 같은 자기갱신을 거치지 않으면¹⁵⁾ 부정한 ‘새로움’에 닿을 수 없다는 치열한 자기부정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15) ‘죽음’과 관련한 연구로는 김정배,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죽음의식 연구」, 원광대 박사학위논문; 신형철, 「김수영 시에 나타난 ‘사랑’과 ‘죽음’의 의미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이은봉, 「김수영 시에 나타난 죽음 연구」, 숭전대 석사학위논문, 1980; 정한아, 「‘온몸’, 김수영 시의 현대성-죽음과 자유를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3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의 연구에서 따르면 김수영의 ‘죽음’은 ‘시인을 끊임없이 반성하게 함으로써 더 큰 세계에 대한 실천의지를 불러오는 기제’, 또는 “아(我)를 버림으로써 자유롭게 타자가 되어갈 수 있는 생성의 동력이자 전제가 되는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해탈의 한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Ⅲ. 창비, 문지 진영의 평가과정과 문제점

1. 창비, 문지 진영의 평가 과정

김수영과 관련한 연구들은 70~80년대를 지나오면서 이른바 ‘김수영 신화’라고 불리는 하나의 문단적 현상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독특한 측면이 있다.¹⁶⁾ 이런 까닭에 김수영 연구사에 대한 연구를 낳고 있기도 하다.¹⁷⁾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창비와 문지로 양분된 우리 문학의 독특한 진영관계가 자리잡고 있다. 즉 4월 혁명세대가 문학계의 중심으로 진입하기 시작한 이후 1966년 백낙청의 주도로 창간된 창비와 1972년에 창간된 문지 진영으로 재편되는 양상으로 이어지면서 두 진영 모두 김수영을 자기 진영을 대표하는 시인으로 평가하면서 김수영에게 문학적 관심이 집중된 것이다.

창비 진영의 시각에서 김수영의 시가 평가되기 시작한 것은 1969년, 백낙청에 의해서부터이다. 창비 진영의 대표적인 평론가인 백낙청은 『시민문학론』에서 김수영이 한용운과 이상을 잇는 시민문학의 계보에 속해있다고 평가함으로써 창비 진영의 작가로 김수영을 편입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¹⁸⁾ 뒤이어 발표한 『문학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에서도 백낙청은 김수영은 “도전적인 용기와 자상한 마음씨를 아울러 갖춘”, “근본적으로는 민중편에서 있”는 작가라고 규정했다.¹⁹⁾ 백낙청과 함께 창비진영의 문학담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염무웅도 김수영의 시의식과 시작품 세계가 모더

16) 강웅식, 『김수영 문학 연구사 30년, 그 흐름의 향방과 의미』, 『김수영 신화의 이면』, 웅동, 2004, pp.15-16.

17) 김수영 연구사를 다루고 있는 논의들로는 김병익, 『진화, 혹은 시의 다양성』, 『세계의 문학』, 1983 겨울, 김승희 편 『김수영 다시 읽기』, 프레스 21, 2000,

18) 백낙청, 『시민문학론』, 『창작과 비평』, 1969 여름호.

19) 백낙청, 『문학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창작과 비평』, 1973 여름호, pp.455-456.

니즘의 틀 속에서 불필요한 난해성을 지니고 있긴 하지만, 모더니즘에서 출발하여 그것을 극복, 현실비판적 시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인 참여계열의 시인으로 평가했다.²⁰⁾ 이로써 김수영은 한국문학을 양분한 한 축인 창비 진영의 작가로 평가되면서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다.

사실 이들의 평가는 유종호와 김현승의 글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1963년에 유종호가 쓴 『현실참여의 시, 수영·봉건·동문의 시』는 김수영에 관한 최초의 글이다. 이 글이 씌어지기 이전까지 김수영에 대한 문단의 평가나 연구사례가 전무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김수영은 그의 생전에는 그리 큰 주목을 받지 못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유종호는 이 글에서 김수영의 문학은 기발한 이미지나 직유, 자조적 분노, 화술의 묘기 등과 함께 강렬한 현실감각과 사회의식을 특징으로 갖고 있다고 지적한다. 여기에 덧붙여 “저항과 참여의 시는 무엇보다도 먼저 상징적이고 암시적인 수법으로보다도 민중의 직정언어로 씌어져야 할 것”이라면서 김수영이 지니고 있는 난해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전후 모더니즘의 특징이자 김수영 문학의 특징은 ‘강렬한 현실감각과 사회의식’이라고 규정했다.²¹⁾ 뒤이어서 김현승도 “그의 어떤 시는 예술과에 속하는 양 보이고, 다른 어떤 시는 참여과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면서 그의 시론은 분명히 참여과를 옹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 두 편의 글은 이후 창비, 문지 진영으로 하여금 서로 김수영을 자기 진영의 작가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²²⁾

20) 염무웅, 『김수영론』, 『창작과 비평』, 1976 가을호.

21) 유종호, 『현실참여의 시-수영·봉건·동문의 시』, 『세대』, 1963.1~2.

22) 김현승, 『김수영의 시사적 위치와 업적』, 『창작과 비평』, 1968 가을호. 이와 관련하여 박수연은 “이 글들은 모더니스트 김수영이 시에 실현하고자 했던 자기비애적 비판의식과 그의 시가 동시에 가지고 있는 예술적이면서도 참여적인 면모를 지적함으로써 훗날의 연구가 주목하게 될 요인들을 미리 제시해주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박수연,

김수영에 대한 창비 진영의 평가는 김지하의 『풍자나 자살이나』에서부터 비판적 경향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전환의 이면에는 당시 사회 현실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창비 진영의 치열한 문학적 실천이 전제되어 있다. 즉 1970년대의 민족문학이 유신독재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문학운동을 본령으로 하고 있었다면, 1980년대의 민족문학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민족, 민중, 통일을 중심축으로 우리 사회의 보다 근본적인 변혁을 지향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지하는 김수영의 자기 풍자가 가지고 있는 의의는 인정하지만 민중의 전통적 저항의식이 부재한 점은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지적했다.²³⁾ 백낙청도 『역사적 인간과 시적 인간』에서 김수영에게서 문제 삼아야 할 것은 그의 시와 난해성의 관계가 아니라 분단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민중적 역량과 역사의식인데 그에게는 그것이 부재한다고 평가함으로써 김수영은 창비 진영의 작가이긴 하나 시대적 한계를 지닌 시인으로 규정되는 양상을 보인다.²⁴⁾ 진영 논리에 근거한 이러한 비판적 평가는 1980년대 중반 채광석에 이르러서 정점에 이른다. 그는 『설 자리, 갈 길』에서 김수영의 시는 민중의식에 대한 자각을 보여주긴 하나 민중적 지향성이나 억압적 사회체제에 대한 공격성이 온전하게 통합되기 이전의 시라고 평가하면서, 김수영의 시는 “그의 시적 성취로서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변혁운동으로서의 문학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²⁵⁾ 김수영에 대한 창비 진영의 평가는 그가 “한국 모더니즘의 위대한 비판자였으나 그 모더니즘을 청산하고 민중시학을 수립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한 시인”이란 것으로 귀결된다.²⁶⁾

앞의 글, p.136.

23) 김지하, 『풍자나 자살이나』, 『시인』, 1970.

24) 백낙청, 『역사적 인간과 시적 인간』, 『창작과 비평』, 1977 여름호.

25) 채광석, 『설 자리, 갈 길』, 『민중문학론』, 성민엽 엮음, 문학과 지성사, 1984, p.89.

이와 달리 문지 진영에서는 김수영의 모더니즘적 특성에 주목하여 그를 이해하려는 경향이 뚜렷이 보인다. 문지 진영의 대표적 평론가인 김현 역시 앞서 언급한 유종호의 논지를 이어받아서 “그의 시의 파격성은 김기림이 그 가치를 높이 든 모더니즘의 한 특성”이라면서 “김수영은 모더니즘을 하나의 문학적 조류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세계를 이해하고 관찰하는 한 정신의 태도로 받아들인” 모더니스트라고 명명한다.²⁷⁾ 이후 문지 진영은 모더니스트로서 김수영이 지니고 있는 형식적 특성에 주목한 글을 발표하기 시작하는데, 황동규의 글이 그 최초의 사례다. 그는 『꽃잎』 1, 2편에 사용된 반복효과에 주목하면서 김수영이 사용하는 반복효과는 명제를 강조하기 위해 쓰이기도 하지만, 주술적인 효과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와 함께 이 시에 나타나 있는 이미지와 색채를 거론하면서 형식이 어떻게 주제를 형성하는가를 면밀히 따졌다.²⁸⁾ 이후 이와 같은 관점에서 문지 진영에서는 김수영 시의 형식적 특성에 기반한 논의가 주를 이루는 양상을 보인다.²⁹⁾ 김중대는 1930년대 모더니즘이 지니고 있던 역사적 한계가 김수영에게 와서 극복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모더니티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모더니즘을 논의한다면 그 중심에 김수영이 있다고 평가했다. 즉 김수영이 보여주는 모더니즘은 ‘모더니티(modernity)’, 즉 자신과 현재의 관계와 인간의 역사적 존재방식, 자율적 주체로서의 자아 등을 동시에

26) 강용식, 앞의 글, p.21.

27) 김현, 『자유와 꿈』, 『김수영의 문학』, 황동규 편, 민음사, 1983.

28) 황동규, 『절망 후의 소리 - 김수영의 꽃잎』, 『심상』, 1974.9.

29)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김수영을 평가한 대표적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현, 『체현』, 『한국현대시작품론』, 김용직, 박철희 엮음, 문장, 1981; 김치수, 『『풀』의 구조와 분석』, 『한국대표시평설』, 문학세계사, 1983; 노대규, 『시의 언어학적 분석-김수영의 「눈」을 중심으로』, 『매지논총』 제3집, 1987; 김혜순, 『김수영 시 연구-담론의 특성 연구』, 건국대 박사학위논문, 1993.

인식하며 현실과 지속적인 대립의식을 갖는 정신으로서의 모더니즘이라고 규정하는 것이다.³⁰⁾ 이와 관련된 문지 진영의 연구나 평가 역시 다수를 이루고 있다.

2. 창비, 문지 진영 평가의 문제점

김수영에 대한 두 진영의 평가는 김수영의 문학적 사유의 본질적 측면을 간과했다는 점에서 뚜렷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창비 진영 논자들은 ‘민중시학’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김수영의 한계라고 지적했지만, 앞서 김수영의 시평(詩評)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현대성’과 ‘새로움’을 바탕으로 한 그의 ‘온몸의 시학’은 실제로는 70~80년대의 ‘민중시학’의 틀을 넘어서는 발본적인 성격에 가깝다. 창비 진영은 4.19를 전후한 시기에 발표한 김수영의 시와, 그의 산문이 지니고 있는 사회의식, 현실의식에 주목하여 그를 참여계열의 작가로만 인식하였지만, 실제로 그가 남긴 176편의 시 가운데 사회적 현실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시는 그 비중이 크지 않으며, 그나마도 현실참여의식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시는 「우선 그놈의 사진을 떼어서 밀셋개로 하자」와 「육법전서와 혁명」, 「푸른 하늘을」, 「가다 오 나가다오」,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등 10여 편에 지나지 않는다.³¹⁾ 또한 창비진영은 산문에서 드러나는 현실의식을 중심으로 김수영을 창비 진영으로 편입시키고 있지만, 시평을 통해 드러나는 그의 현실의식은 치열하게 ‘새로움’을 추구하려는 문학적 지향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창비 진영의 평가는 김수영의 문학 전체를 아우르는 평가로는 미흡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즉 창비진영은 70~80년대의 억압적 체제에 맞

30) 이종대, 「김수영 시의 모더니즘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93, p.19.

31) 부록 3 참고.

서는 문학적 실천에 충실한 나머지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사상과 양식에 대한 거부, 그리고 ‘죽음’과도 같은 자기 갱신을 통한 새로움의 추구를 자신의 문학적 본령으로 추구한 김수영 문학의 본질을 바로 보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김수영의 문학을 총체적으로 끌어안지 못한 것은 문지 진영도 마찬가지다. 앞서 시평 분석을 통해 드러나는 바와 같이 김수영이 자신의 문학적 기준으로 삼은 두 가지, 즉 ‘현대성’과 ‘새로움’은 어디까지나 ‘사상’과 ‘양심’ 즉 ‘현실’에 기반한 것이었다. 그는 “몇 번이고 말하는 것이지만, 기술의 우열이나 경향 여하의 문제가 아니라 시인의 양심이 문제다”(2557)라거나, 또 “양심이 없는 기술만을 구사하는 시를 주지적(主知的)이고 현대적인 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기를 세련된 현대성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2272)에 불과하다면서 형식이나 ‘포즈’에만 몰두하는 태도를 수차례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문지진영의 김수영에 대한 평가에서는 김수영이 강조한 현실의식이나 사상, 양심 등 문학인이 지녀야 할 마땅한 정신적 자세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배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수영은 “우리 현대시가 꺾어야 할 가장 큰 난관은 포즈를 버리고 사상을 취해야 할 일이다. 포즈는 시에 신념있는 일관성을 주지 못하지만 사상을 그것을 준다”면서 “지성인으로서 시인의 기저(基底)에 신념이 살아 있어야”(2535)함을 누구보다 강조했다. 그가 말한 ‘양심’과 ‘신념’이 “뒤떨어진 현실을 직시하는” 것임은 앞서 말한 바와 같다. 결국 새로운 시는 “종래의 부르주아 사회의 미(美)-즉, 쾌락-의 관념에 대한 부단한 부인과 전복에 의해서만 이루어”(2368)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지 진영은 그의 시가 지니고 있는 ‘모더니스트’적 특성에만 주목해서 그를 논의한 결과 “정작 김수영은 모더니즘의 태생적 한계를 벗어 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들에 대한 2차적 해석들에 의해서 현실

을 문학언어로 대체하는 모더니즘의 운명으로 가라앉고 말았다”³²⁾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창비와 문지 두 진영의 김수영에 대한 상반된 논의와 관련하여 최원식의 다음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미 지적했듯이 70년대 민족문학운동은 자본주의와 현존사회주의를 동시에 넘어서고자 하는 본원적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쟁과의 연관 속에서 자연 진영적 사고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문단 내부적으로는 4월 혁명 세대의 분리가 현실화되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문학과지성』의 창간(1972)은 대표적인 것이다. 순수문학론과 민족문학론의 대립 사이에 등지를 튼 이들 중간과는 김수영의 ‘모더니즘’을 계승함으로써 김수영의 ‘모더니즘’을 비판하고 그 ‘리얼리즘’을 계승한 민족문학론과 미묘한 차이를 드러내었다. 민족문학운동이 확산·고조되는 과정에서, 특히 80년대 이후, 이 차이는 하나의 간극으로 벌어지고 말았으니, 민족문학운동에서는 김수영적인 것보다 신동엽(申東暉)적인 것이 압도하는 형국, 다시 말하면 신동엽의 범속화가 대세를 이룸으로써 ‘리얼리즘’과 ‘모더니즘’ 사이에 다시 한번 만리장성이 쌓인 것이다.³³⁾

김수영에 대한 창비 진영의 평가는 김수영의 현실참여적 특성을 기반으로 1970~80년대 억압적 사회현실에 치열하게 맞서고자 한 문학적 실천의 결과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적지 않다고 해야 할 것이다. 문지 진영 역시 김수영이 가진 모더니즘적 특성에 천착한 결과 그의 시가 가진 문학내적 특성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한국문학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창비 진영은 ‘민중시학’이라는 진영 논리에 간혀 김수영의 ‘현대성’과 ‘새로움’의 의미를

32) 박수연, 앞의 글, p.141.

33) 최원식,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회통』, 『문학의 귀환』, 2001, p.53.

바로보지 못했고, 문지 진영은 모더니티와 형식적 측면에 함몰되어 김수영이 추구한 현실의식을 외면함으로써 “육체로서 추구하고자 한 치열한 모더니티”(2515)를 정확히 바라보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김수영의 시평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살펴본 김수영 문학의 지향은 현대성과 새로움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그의 현대성은 문화와 민족과 인류에 공헌하기 위한 치열한 자기부정으로서의 현대성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었다. 또한 김수영의 새로움은 시적 개성의 지점을 넘어 ‘언어’ 이전에 먼저 현실에 대해 고통하고 절망하는 ‘새로움’이자 죽음과도 같은 절망을 통과해낸 ‘육성’으로서의 새로움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창비 진영은 ‘민중시학’에 집착한 나머지 민중시학의 틀을 넘어서는 김수영의 ‘온몸의 시학’이 지닌 발본적 성격을 간과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문지 진영 역시 ‘모더니스트’적 특성에만 주목한 나머지 김수영이 추구하고자 한 ‘현대성’과 ‘새로움’이 ‘사상’과 ‘양심’ 즉 ‘현실’에 기반하고 있음을 간과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시평에 대한 분석을 통해 파악되는 김수영은 누구보다도 역사의식을 망각하는 것을 경계했으며, 지식인으로서의 사명에 충실하는 것이 시인의 임무라고 믿었던 시인이었다. 동시에 그는 새로운 현실에 대한 탐구 못지않게 새로운 시 형식의 발굴에 적극적으로 임한 작가이기도 했다. 그에게서 중요한 것은 <참여시>도 <순수시>도 아니었다.³⁴⁾ 그가 추

34) 2366. (김현승과 박두진의 시를 거론하며) 김수영은 “<참여시>니 <순수시>니 하기 전에 우선 작품의 수준에 달해야 한다는 좋은 표본을 우리들은 이 두 시인에게서 볼

구한 문학은 ‘죽음’과도 같은 ‘새로움’을 견뎌내면서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것을 ‘온몸’으로 거부하는 진정한 ‘현대성’의 지향인 것이다.

1990년대 이후 김수영에 대한 창비 진영과 문지 진영의 논의는 민중시학과 모더니즘의 틀을 넘어서서 김수영 문학이 지니고 있는 본질적 특성을 규명해내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김수영의 시평에 대한 보다 깊이 있고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김수영 문학의 근원에 한 발 더 가까이 가닿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 있다.”고 말했다.

부록 1. 『전집 2』 2~3부 시평에 나타나 있는 김수영의 평가 사례 분류

| | 제목 | 긍정적 평가 | 부정적 평가 | 양극적 평가 또는 평가보류 |
|---|------------------------------|--|--|--|
| 1 | 시의 완성 -박두진 『거미와 성좌』 | 박두진 | | |
| 2 | 세대교체의 연수표 -1963년의 시 | 마중기 | 석용원, 신동집, 박재호, 박희진, 황동규, 민 영, 마중기, 송 우, 이인석, 장 호 | |
| 3 | 생활현실과 시 | 김현승, 김광섭 | 박희진 | 이철주, 신동문, 장 호, 박봉우, 박희진, 이철주 |
| 4 | <난해>의 장막 -1964년의 시 | 김춘수 | 박두진 | 김광섭, 김현승, 이철주 |
| 5 | 진정한 난해성의 지향 -박태진의 시세계 | | 박태진 | |
| 6 | 예술작품에서의 한국인의 애수 | 김소월, 박용철, 김종환 | 김 익, 오장환 | 윤근강 |
| 7 |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 -1966년의 시 | <기성 작가> 김현승, 박두진, 유치환, 김광섭, 박목월, 서정주 <젊은 층> 신동엽, 김재원, 권일승, 김영태, 성춘복, 조태일, 마중기, 유경환, 김광협, 신기선, 이승훈, 주문돈, 이 탄, 오경남, 이성부, 고 은, | 김춘수, 전봉건, 박남수, 허소라 | 황동규, 이재하, 박이도, 박의상, 권용태, 양명문, 김중문, 김윤성, 전영경, 이상로, 박봉우, 이유경, 강인섭, 이근배, 신세훈, 황 명 |
| 8 | 참여시의 정리 -1960년대의 시인을 중심으로 | 유치환, 이 상, 김재원, 신동엽 | 박인환, 이 중 | |

4부 - 1964년 4월 ~ 1967년 12월 월평

| | 제목 | 긍정적 평가 | 부정적 평가 | 양가적 평가 또는 평가보류 |
|----|---------------------------------------|--|---|-------------------|
| 1 | 모더니티의 문제 -1964년 4월 시평 | 김해강, 구자운 | 이수복, 신동집, 김춘수, 김남조, 박목월, 김광림 | 박성룡 |
| 2 | 즉물시(卽物詩)의 시험 -1964년 5월 시평 | 박목월, 구자운 | 신석초, 이동주 | 황금찬, 장호 |
| 3 | <현대성>에의 도피 -1964년 6월 시평 | 이제하 | 송 욱, 김구용 | 박이도 |
| 4 | 요동하는 포즈들 -1964년 7월 시평 | 김현승 | 장호 | 김구용 |
| 5 | 현대시의 진퇴 -1966년 1월 시평 | 김현승, 김재원, 김영태 | 박남수, 전영경, 박이도, 성관경, 송 욱 | |
| 6 | 윤곽 잡혀가는 시지(詩誌)·동인지 -1966년 2월 시평 | <기성시인> 김광섭, 서정주, 박목월 <신춘시> 권일송, 조태일, 황 명, 강인섭, 이근배, 신세훈, 이일기, 이성교 | 김요섭 | |
| 7 | 젊은 세대의 결실 -1966년 3월 시평 | 박성룡, 신동엽, 박두진, 김영태 | 김남조 | 황동규, 박봉우 |
| 8 | 지성의 가능성 | 조태일, 박두진, 마종기, 이 탄, 성춘복 | 권일송, 박봉우, 김영태, 윤삼하, 이동주, 문덕수, 김현승 | |
| 9 | 진도 없는 기성들 -1966년 5월 시평 | 신기선, 이성교, 유경환, 권일송, 조태일, 신석초, 박성룡, 서정주, 성춘복 | 유경환, 이철범, 박남수, 김춘수, 박성룡, 이제하, 고 은, 박목월 | 권일송 |
| 10 | 포즈의 폐해 -1966년 6월 시평 | 박의상 | 예술파의 신진들 | 이승훈, 이성부, 허소라 |

| | | | | |
|----|---|--|--|-------------------------------|
| 11 | 평균 수준의 수확 -1966년 6월 시평 | <기성 시인> 김광섭, 박두진, 이동주, 김현승, 김해강 <젊은 층> 허소라, 박의상, 권용태 | | 이수익 |
| 12 | 체취의 신뢰감 -1966년 7월 시평 | 김광협, 조태일, 유치환 | 김광협, 정현중, 황동규, 박이도, 김화영, 이상로, 성춘복 | |
| 13 | 짧고 소박한 작품들 -1966년 11월 시평 | 조태일, 낭승만, 박두진, 조남익 | 신동엽, 김춘수, 이제하 | 노영수 |
| 14 | 진전 속의 실패 -1966년 12월 시평 | 황동규, 오경남, 유치환, 이원수, 이 탄 | | 최 원, 안장현, 장수철 |
| 15 | 다섯 편의 명맥 -1967년 1월 시평 | 유치환, 이원수, 황동규, 오경남, 조태일, 이 탄 | 신세훈, 김원호, 윤삼하, 최 원 | 안장현, 장수철 |
| 16 | 시적 인식과 새로움 -1967년 2월 시평 | 김광섭, 이원수, 성춘복 | 서정주, 김춘수 | |
| 17 | 새로운 포털리스트들 -1967년 3월 시평 | 유치환, 김현승 | | 이해녕, 김지향, 김영태, 이수익, 주문돈 |
| 18 | 새로운 <세련된 차원> 발견 -1967년 7월 시평 | 조태일 | 박기원, 권국명 | |
| 19 | 새삼 문제된 <독자 없는 시> -1967년 8월 시평 | | | |
| 20 | <낭독반>의 성패 -1967년 9월 시평 | 양명문, 황명길, 신동엽, 김재원, 이 탄, 김춘수 | | |
| 21 | <죽음과 사랑>의 대극은 시의 본수(本髓) -1967년 10월 시평 | 김현승 | | 이성교 |
| 22 | 불성실한 시 -1967년 11월 시평 | | | |
| 23 | 지성이 필요한 때 -1967년 12월 시평 | | | |

부록 2. '새로움', '현대성'과 관련된 평가 사례

| | 제목 | 긍정적 평가 | 부정적 평가 |
|----|------------------------------|--|---|
| 1 | 생활현실과 시 | 김광섭 - 낡은 것이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서 죽음의 깊이가 있다고 평가. | 박희진 - 새로운 관념의 서술도 없고 새로운 언어의 작용도 없다고 평가. 이철주, 신동문, 장호, 박봉우, 박희진, 이철주 - 새로운 언어의 서술을 통해서 자유를 행사한 성공적인 시가 없다고 평가. |
| 2 | <난해>의 장막 -1964년의 시 | 김춘수 - 새로운 객관을 추구하였다고 평가. | |
| 3 | 진정한 난해성의 지향 -박태진의 시세계 | 박태진 - 현대성과 새로움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 | |
| 4 |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 -1966년의 시 | | 황동규, 이제하, 박이도, 박의상, 권용태 - 새 현상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 |
| 5 | 모더니티의 문제 -1964년 4월 시평 | | 박목월 - 새로운 것이 없다고 평가. |
| 6 | 즉물시(卽物詩)의 시험 -1964년 5월 시평 | 박목월 - 현대적이라고 평가. | 신석초 - 반현대적이라고 평가. |
| 7 | <현대성>에의 도피 -1964년 6월 시평 | | 송옥 - 새로운 정신이 아니라고 평가. 박이도 - 현대성에의 도피라고 평가. |
| 8 | 지성의 가능성 | 마중기 - 풍자의 현대성이 있다고 평가. 이탄 - 시적 개성이 있다고 평가 | 권일송, 박봉우, 김영태 - 새 수준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 |
| 9 | 진도 없는 기성들 -1966년 5월 시평 | 이성교 - 독창성이 있다고 평가. | |
| 10 | 포즈의 폐해 -1966년 6월 시평 | 박의상 - 현대적인 감각이 있다고 평가. | 허소라 - 비현대성을 지녔다고 평가. |

| | | | |
|----|--|--|---|
| 11 | 평균 수준의 수확 -1966년 6월 시평 | 김광섭 - 현대적인 아이러니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 허소라 - 현대적 감각미를 지녔다고 평가 | 이수익 - 새로운 것이 없다고 평가. |
| 12 | 체취의 신뢰감 -1966년 7월 시평 | 조태일 - 현대의 상상을 지녔다고 평가. 김광협 - 자기의 체취(개성=새로움)을 지녔다고 평가. | 정현중, 황동규, 박이도, 김화영 - 체취가 없다고 평가 |
| 13 | 짧고 소박한 작품들 -1966년 11월 시평 | 조태일 - 자기 고유의 톤이 있다고 평가. | |
| 14 | 진전 속의 실패 -1966년 12월 시평 | 황동규 - 개성적인 구성미가 있다고 평가. 오경남 - 자기의 세계를 구축해보려고 한다고 평가. | |
| 15 | 다섯 편의 명백 -1967년 1월 시평 | 황동규 - 나름의 구조의 미학이 있다고 평가. | |
| 16 | 시적 인식과 새로움 -1967년 2월 시평 | 김광섭 - 새로움을 지녔다고 평가. | 서정주, 김춘수 - 새로움이 없다고 평가. |
| 17 | 새로운 <세련된 차원> 발견 -1967년 7월 시평 | 조태일 - 자기만의 새로운 목소리가 있다고 평가. | 박기원 - 새로움이 없다고 평가. |
| 18 | <죽음과 사랑>의 대극은 시의 본수(本龍) -1967년 10월 시평 | 김현승 - 자기의 스타일을 가졌다고 평가. | |

부록 3. 『전집 1』 김수영 시의 주제별 분류

| | 주제별 | 작품목록 | 작품수 |
|---|---|---|-----|
| 1 | 가족 관련 | 이, 아버지의 사진, 아침의 유혹, 애정지문, 너를 잃고, 나의 가족, 나비의 무덤, 사치, 자장가 | 9 |
| 2 | 가난 관련 | 풍뎡이, 부탁, 미숙한 도적, 거미, 구슬픈 육체, 휴식, 거리1, 기자의 정렬, 사무실, 여름 뜰, 백의, 지구의, 자, 모리배, 생활, 달밤, 가옥찬가, 씨리꽃 핀 벌판, 파리와 더불어 피곤한 하루의 나머지 시간, 신귀거래 1~2, 4~9, 먼 곳에서부터, 여수, 파자마 바람으로, 장시 2, 만용에게, 피아노, 깨꽃, 후란널 저고리, 반달, 강가에서, X에서 Y로, 이사, 이 한국문학사, 판문점의 감상, VOGUE야, 미농인찰치 | 44 |
| 3 | 정신적 자세 관련 | 공자의 생활난, 토끼, 달나라의 장난, 구라중화, 도취의 피안, 방 안에서 익어가는 설움, 더러운 향료, PLASTER, 공지의 날, 영사관, 서책, 헬리콥터, 수난로, 너는 언제부터..., 연기, 베이킹 탄, 바뀌어진 지평선, 구름의 파수병, 여름 아침, 눈, 꽃2, 영롱한 목표, 폭포, 불뿔, 채소밭 가에서, 예지, 하루살이, 서시, 광야, 영교일, 꽃, 초봄의 뜰 안에, 말(?), 밤, 동맥, 사령, 조그마한 세상의 지혜, 말복, 반주곡, 파발 가에서, 동야, 미스터 리에게 신귀거래 3, 백지에서부터, 장시 1, 적 2, 절망 | 47 |
| 4 | 현실 관련 | 가까이 할 수 없는 서적, 아메리카 타임 지, 조국에 돌아오신 상병포로 동지들에게, 하...그림자가 없다 우선 그놈의 사진을 떼어서 밀싯개로 하자, 기도, 육법전서와 혁명, 푸른 하늘을, 만시지탄은 있지만, 나는 아리조나 카보이아, 가다오 나가다오, 중용에 대하여, 그 방을 생각하며, 눈(P.208), 쌀난리, 황혼, <4.19>시, 아픈 몸이, 시, 적, 만주의 여자, 전향기(轉向記), 거대한 뿌리, 현대식 교량, 65년의 새해, 제임스 멍, 적1,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눈(P. 322), 풀의 영상, 설사의 알리바이, 사랑의 변주곡, 거짓말의 여운 속에서, 꽃잎 1, 꽃잎2, 여름밤, 세계일주, 라디오 계, 먼지, 풀 | 40 |
| 5 | 기타 난독 포함 | 묘정의 노래, 웃음, 시골선물, 국립도서관, 거리2, 병풍, 비, 거미집이 허튼 소리, 나가타 겐지로, 사랑, 마케팅, 절망, 여자, 돈, 죄와 벌, 우리들의 웃음, 참음은, 시, 거위소리, 말(言), 미역국, 잔인의 초, H, 이혼취소, 식모, 엔카OUNTER 지, 전화 이야기, 금성라디오, 도적, 네 얼굴은, 꽃잎 3, 미인, 성, 원효대사, 의자가 많아서 걸린다 | 36 |
| | 1) 작품 목록의 점선 위는 4.19 혁명 이전에 쓰인 시이며, 그 아래는 이후에 쓰인 시임. 2) 작품에 대한 분류는 기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 주관적 분류임. | 176 | |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김수영 전집』2, 민음사, 2012.

2. 논문 및 단행본

- 강웅식, 「김수영 문학 연구사 30년, 그 흐름의 향방과 의미」, 『김수영 신화의 이면』, 응동, 2004.
- _____, 「김수영 시론 연구」, 상허학보, 2003.
- 김명인, 「김수영의 <현대성> 인식에 관한 연구」, 인하대 석사학위논문, 1994.
- 김병익, 「진화, 혹은 시의 다양성」, 『세계의 문학』, 1983 겨울, 1983.
- 김승희 편 『김수영 다시 읽기』, 프레스 21, 2000.
- 김정배,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죽음의식 연구」, 원광대 박사학위논문, 2011.
- 김지하, 「풍자나 자살이나」, 『시인』, 1970.
- 김치수, 「『풀』의 구조와 분석」, 『한국대표시평설』, 문학세계사, 1983.
- 김 현, 「자유와 꿈」, 『김수영의 문학』, 황동규 편, 민음사, 1983.
- _____, 「체험」, 『한국현대시작품론』, 김용직, 박철휘 엮음, 문장, 1981.
- 김현승, 「김수영의 시사적 위치와 업적」, 『창작과 비평』, 1968 가을호, 1968.
- 김혜순, 「김수영 시 연구-담론의 특성 연구」, 건국대 박사학위논문, 1993.
- 노대규, 「시의 언어학적 분석-김수영의 『눈』을 중심으로」, 『매지논총』 제3집, 1987.
- 박수연, 「김수영 해석의 역사」, 『작가세계』, 2004 여름, 세계사, 2004.
- 박현수, 「김수영의 신화」, 『시인세계』 14, 2005 겨울호, 문학세계사, 2005.
- 백낙청, 「문학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창작과 비평』, 1973 여름호.
- _____, 「시민문학론」, 『창작과 비평』, 1969 여름호.
- _____, 「역사적 인간과 시적 인간」, 『창작과 비평』, 1977 여름호.
- 염무웅, 「김수영론」, 『창작과 비평』, 1976 가을호.
- 유종호, 「현실참여의 시-수영·봉건·동문의 시」, 『세대』 1963.
- 이은봉, 「김수영 시에 나타난 죽음 연구」, 숭전대 석사학위논문, 1980.
- 이종대, 「김수영 시의 모더니즘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93.
- 조현일, 「김수영의 모더니티관에 관한 연구 : 트릴링과의 영향관계를 중심으로」, 『작가연구』 제5호, 1998 상반기.

- 채광석, 「설 자리, 갈 길」, 『민중문학론』(성민엽 엮음), 문학과 지성사, 1984.
- 황동규, 「절망 후의 소리 - 김수영의 꽃잎」, 『심상』, 1974. 9.
- Trilling, Lionel, 김수영 역, 「쾌락의 운명 : 위즈워드에서 도스또예프스키까지」, 『현대 문학』, 1965. 11.

| |
|-----------------|
| Abstract |
|-----------------|

A Study on the Criticism of Kim Su-yeong's Poetry

Kwon, Jin-Hui

Kim Su-yeong has attracted considerable attention from 『Creation and criticism』(Changbi) and 『Literature and Intelligence』(Munji) that bisected the modern Korean literature for long time as being evaluated as their literatural stronghold. Changbi camp centering around Baek Nak-Cheong and Yeom Mu-Ung has evaluated him as one of participant poets giving attention to his sense of reality, while Munji camp has evaluated him as one of modernist poets giving attention to his modernity as a style facing to the reality. However, the characteristics of Kim Su-yeong's literature identified through comments are analyzed by two aspects, 'modernity' and 'novelty'. His modernity means a practical resistance against everything that suppresses freedom based on 'the poetics of whole body', and his novelty means a strong individuality and at the same time the process toward self-renewal like a death through thorough despair. Therefore, the existing evaluation of Kim Su-yeong by Changbi camp and Munji camp overlooked the essential part of his literature. The literature Kim Su-yeong sought is the aiming at the real 'modernity' that refuses everything that suppresses freedom with the whole body, while enduring the 'novelty' like 'death'.

Key Word : Kim Su-yeong, Chang-bi, Mun-ji, modernism, modernity, poetics of full body

권진희

소속 : 고려대학교 문예창작학과 박사과정

주소 : (706-935)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캐슬골드파크 1512동 502호

전화번호 : 02-783-1525

전자우편 : kjh2001id@hanmail.net

이 논문은 2013년 6월 30일 투고되어
2013년 7월 26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3년 8월 2일 게재 확정됨.